

같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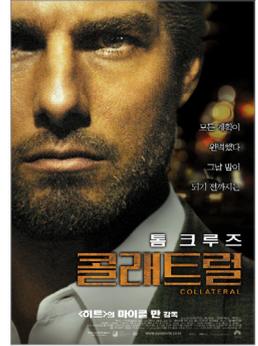
: 미디어 속 직업병

청부살인업자와 택시운전사가 만났다. 동업자는 아니다. 소심한 시민인 택시운전사는 청부살인업자가 두렵다. 자신의 꿈을 무시하는 태도도 싫다. 하지만 죽지 않으려면 그가 시키는 대로 시간 내에 LA 시내를 돌며 운전해야 한다. 영화 <콜래트럴>은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글 편집실

장시간 운전하는 택시기사에게 나타내기 쉬운 병

영화 <콜래트럴(Collateral, 2004)>을 통해 본
방광염



청부살인업자에게 생명을 담보로 잡힌 택시운전사

맥스(제이미 폭스)는 언젠가 자신만의 리무진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지닌 LA 택시기사다. 물론 12년째 꿈만 꾸고 있지만 언젠가 이를 꿈 덕분에 살아간다. 그는 LA 시내 지름길은 물론, 노스스프링에서 유니온까지 7분, 베니스까지 3분 등 소요 시간까지 빠삭하게 외우고 있다.

어느 날, 그는 하룻밤동안 다섯 군데를 들러 볼일을 보고 새벽 6시까지 공항에 가야 한다는 손님을 만난다. 고급 회색 슈트를 입은 빈센트(톰 크루즈)다. 맥스는 고민 끝에 그 제안에 응하지만, 첫 번째 목적지에서 곧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 빈센트가 청부살인업자였던 것. 그는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맥스는 물론 누구라도 살해하겠다고 말한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맥스는 저항도 못한 채 차례차례 암살 장소로 향한다.

영화 <콜래트럴>은 청부살인업자 빈센트가 다섯 건의 살인을 처리하기 위해 택시운전사 맥스를 고용해 함께 밤새 겪는 일을 담고 있다. 빈센트가 맥스에게 던지는 제안은 살인을 돕거나 아니면 죽거나다.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맥스에게 빈센트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을 뒤엎는 일이다. 청부살인업자의 위협 외에도 맥스 같은 택시운전사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 바로 택시운전사 혹은 버스기사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직업병인 '방광염'이다.

쉽게 말 못 하는 직업병, 방광염

방광염은 단어 그대로 방광에 생기는 염증을 말한다. 배뇨통, 야간뇨, 빈뇨, 배뇨 곤란, 요실금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때로는 혈뇨가 나오기도 한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원인이거나 장시간 소변을 참을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방광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 80% 이상이 대장균 때문에 발생하며 포도상구균, 장구균 등도 원인이 된다. 그 외 소변을 과도하게 참는 것, 체수분 부족 등이 있다. 제때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기사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 고객 응대하는 민원업무 담당자나 상담원도 많이 앓는 병이다.

방광염 초기에는 1~2주 정도 항생제와 약물치료를 통해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이나 재발을 초래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방광염의 유발 요인을 찾아 이를 제거 혹은 교정해야 재발하지 않는다. 치료할 때는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되며,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방광염이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평소보다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본다.
 -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다.
 - 배뇨 시 통증이 있다.
 - 잔뇨감이 든다.
 -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 수면 중 2회 이상 화장실을 간다.
- ※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TIP

방광염, 이렇게 예방해요!

- 피곤하면 발생하기 쉽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 소변을 오랜 시간 참지 않는다.
-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 술, 커피, 콜라 등 방광을 자극하는 음료를 피한다.